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제7주간

제7주간: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들어가는 말

하느님은—삼위일체 하느님에게 귀속시킨 표현대로—“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창세 1,26) 인간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지어졌기에 우리는 지적이고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항상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리서는 우리가 인격이지 사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주체가 되며, 자유로이 자신을 내어 주고 다른 인격들과 친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57항) 하느님이 그 모든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모습(모상)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슷함(= 유사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분과 어떻게 “비슷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느님과 비슷함(= 유사성)이 몸을 지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자렛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 바오로는 콜로새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콜로 2,9-10)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느님과 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행동하면 우리도 하느님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분을 알고 싶어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고 나자렛의 목수 요셉이 키워 낸 그분 말입니다. 루카는 그분이 우리 모두가 그러는 것처럼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충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자렛 예수님은 소년이었고 젊은이였습니다. 열 살 무렵에는 진지하게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회당에서 랍비에게서 배웠을 겁니다. 우리는 이름도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특권을 얻어서 잘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부분이 두루마리의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연장을 어떻게 다룰지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가르쳤습니다. 요셉은 좋은 아버지라면 어

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시대에 대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는 시골 동네에서 노동자로 자랐습니다. 그는 장인으로 일했으니 손에는 못이 박혔을 겁니다. 일반 서민들과 편안하게 지냈으며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법도 배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최소한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유명한 ‘성전에서 찾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는데 부모님이 떠났지만 예수님은 혼자 뒤에 남았습니다. 부모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찾으러 다닐 때의 심정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 겁니다.

예수님은 몇 명의 충실한 추종자들과 수많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라자로와 그의 누이들, 마리아 막달레나, 니코데모, 아리마태아의 요셉이 그들이지요. 예수님은 매우 인기가 좋았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 모두 그분을 좋게 말했습니다.(루카 4,22 참조)

예수님은 공적인 가르침과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말하였고 위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충실했고 종교적 및 세속적 권력에서 그들을 변호하였습니다.

성 바오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고”, 우리가 나자렛 예수님과 비슷하게 되면서 “우리가 반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2코린 3,18)입니다.

왜냐하면 나자렛 예수님을 양성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양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나자렛 예수님을 양성하실 때에 썼던 것과 같은 패턴을 써서 우리가 “그분과 비슷하게 되도록” 양성하십니다.

기도 도움말

이나시오식 관상의 기도

당신은 이미 예수님의 생애에 나온 사건들 중에서 어떤 것을 '관조'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컨대, 우물가의 여인과 치유를 간청하는 맹인, 빵 몇 조각으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등을 바라본 일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당신이 그 장면의 일부가 된 듯이 느끼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이 아니라, 영화 속의 한 사람처럼 느끼는 거죠.

네 자녀의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언젠가 최후의 만찬을 상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어 자기 발을 씻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한 남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성모 마리아의 무릎에 올려놓았고, 성모 마리아님이 자기에게 "이 사람은 내 아이예요. 그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어요."라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눈물 없이는 이 체험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체험에 대해 마음준비를 하세요. 마음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생활을 선하게 하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면 로울라의 성 이나시오가 복음을 관조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줬던 것처럼 기도하고 싶어질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장면을 관조하면서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예수회원이든 평신도이든 이나시안 가족들은 모두 이런 식의 기도에 초대됩니다. 당신도 이런 기도 방식을 소개받은 일이 있을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애에 나오는 여러 에피소드 가운데에서 당신이 관조묵상을 하고 싶은 대목을 선택하여 해당 성경구절을 찬찬히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 장소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언덕이 될지 아니면 시골 마

음의 장터일지 기둥이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집안일지 모르지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청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가요? 많은지 적은지, 돌인지 열돌인지 주목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고 무엇을 입었으며, 피곤한지 행복한지 아니면 어떠한지를 보세요. 당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자리는 어디 인가요? 그들 중에 어떤 이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다음으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어 보세요. 내용만이 아니라, 목소리와 말투, 감정도 함께 느껴 보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들었고 느낌이 어떠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리고 끝으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 보세요. 자캐오의 집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잔치 자리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자캐오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나누겠다고 선언할 때에 당신은 들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키 작은 그분의 친구와 함께 기뻐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기도를 일단 시작하면 사람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가 섞여도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릴 때에 그 사람이나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 주실 때에 그 부인이 한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일이 일어나는 대로 놔두는 겁니다.

이 기도는 침묵 가운데 바치는 진정 은혜가 충만한 기도입니다. 발에 쥐가 나지 않으면 언제 시간이 가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라도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주님 말씀을 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다 되면 현실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하루와 해야 할 일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인지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 [역자 주] : 이하에서는 이나시오식의 '관상contemplation'을 '관상' 또는 '관조묵상'이라고 칭함.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청하는 은총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을 우리처럼 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고, 무능하고 약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여인
들, 한나, 드보라, 룻, 유딧, 에스테르와 다른 많은 여인
들을 선택하셨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489항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신학적인 거대담론으로 기도할 때에는 (아래의 요한복음 서문과 같이) 신비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당신이 무엇을 믿고 희망하는지를 숙고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열정과 지혜를 청하세요.
2. 이번 주간에: 삼위일체의 제2 위격에서 인간의 생명을 취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임태되고 탄생하셨습니다. 젖을 떼고 걸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린이였다가 어른으로 자라셨습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생활을 경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생명을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고자 왔습니다.
4. 청하세요: 하느님, 당신 아드님을 우리처럼 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요한 1,1-18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육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

단상

진정한 시작

성자께서 인간의 육을 취하여 오시는 심오한 신비를 향하면서 우리가 가진 전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제공하는 전망, 곧 시간과 공간과 우주 전체가 빅뱅으로 시작되었다는 사고로 혼돈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생명의 진화가 그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빅뱅 이론은 사실 육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우선 첫째로, 빅뱅은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시간 이전에 그리고 시간 밖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서 하나님은 각각의 존재를 차례로 창조하기로 결정했고, 이 지구상에 생명이 진화하여 마침내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들과 마주 보며 대용량의 두뇌를 지닌 직립보행의 짐승에게 인간의 영혼을 불어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삼위께서 빅뱅 이전부터 영원히 준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뽑아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언적인 지도자와 왕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느님은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매우 공식적인 계약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느님은 그들이 번성하게 보살피시고 적들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겁니다.

계약은 피로 맺어졌는데, 다른 짐승들의 피였습니

다. 계약의 결과인 율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율법은 기록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타르수스의 바오로조차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로마 7,25)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죄에 빠진 존재로서 공감할 수 있겠지요. 율법은 이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차자” 하나님이 몸소 영원한 계획의 주춧돌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취하여 오서 두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표상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요한 16,13)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세상의 전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시작이고 마침이며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와 지구와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같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닌 현재와 미래의 전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온 누리의 우주와 모든 역사와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려 주는 우리의 세계관, 역사관입니다.

메모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청하는 은총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을 우리처럼 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사람들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친교를 이루
며 살고 관계 안에서 자기가 되고, 우리가 창조된 삼위일
체의 모상의 신비를 투영합니다. -무명씨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당신은 이 일을 단순하게 관조하면서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계신 방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천사가 들어오고 그분들이 어떻게 자리 잡는지를 보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유심히 보세요.
2. 이번 주간에: 당신은 하느님이 인류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하느님이 나자렛을, 마리아를, 요셉을 그리고 인류를 찾아오십니다.
4. 청하세요: 하느님, 당신 아드님을 우리처럼 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1,26-38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
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단상

주님 탄생 예고

지구상의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구분됩니다. 그 구분선은 “충만한 때”가 시작된 탄생 예고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484항 참조)

엄밀하게 보면 구분선은 성모님의 응답,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류 생활의 옛 절반을 마감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후반을 시작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교회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느님은 늘 각자 개인의 영혼을 창조하시는데, 하느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늘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각 인간의 영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틀림없이 분명합니다. 각 사람의 영혼은 지성과 자유와 창의성을 하느님과 공유할 것입니다. 이 고유한 경우에 창조주 하느님은 성자의 완전한 인간성을 성모 마리아의 태에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딸, 갈릴래아 나자렛의

한 젊은 유다 여인”(가톨릭 교회 교리서, 488항)을 무한한 배려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대를 통하여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이는 하느님이 인간의 죄의 결과가 그녀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지 그녀가 자라는 동안이나 잉태된 동안에도 죄에서 자유로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세주의 어머니는 “하느님에게서 이 위대한 임무에 맞갖은 은혜를 받았다.”(교회헌장 「인류의 빛」, 56항) 그녀는 자라면서 뛰어난 신부요 어머니로서 인내롭고, 지혜롭고, 강하고 사랑에 찬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구세주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놀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누구나 도우라고 가르친 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고, 요셉과 함께 사랑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메모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청하는 은총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을 우리처럼 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성삼위나 강생하신 영원한 말씀이나 우리 어머니이신 성
모님께 말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담화를 한다.

- 「영신수련」 109번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잉태고지와 같은 사건을 관조묵상할 때에도,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당신의 일상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자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새로 발견한 것을 주님께 봉헌하세요.
2. 이번 주간에: 당신은 성 아우구스티노가 지적한 심오한 신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인간들이 그분의 신적인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즉 “하느님처럼 될 수 있게” 했습니다.
필시 이것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이 사건을 만드는 이가 누구인지를 보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보세요.
4. 청하세요: 하느님, 당신 아드님을 우리처럼 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1,26-38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하느님이 행동하신다. 가브리엘 천사를 나자렛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보내신 분은 하느님이시다.
여기서 나는 점에 대해서 놀랐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질문을 한다. 나는 에 대해서 묻고 싶다.

주님은 마리아가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킨다.
주님이 나를 준비시키신 방법은 이지 않을까?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꺼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청하는 은총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을 우리처럼 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나는 보잘것없는 부당한 종이 되어 그분들을 보고 또 찬
찬히 살펴보면서 그분들의 필요에 맞추어 시중을 드는데
가능한 한 모든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 『영신수련』, 114번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상상 속에서 마구간을 그리면서 이 장면을 관조하고 묵상하세요. 누가 거기에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가능하면 마구간 어딘가에 당신 자리를 잡으세요.
2. 이번 주간에: 마리아도 다른 어머니들과 같다는 진실에 집중하세요. 요셉은 때가 왔을 때에 아이를 돌볼 책임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가 되어 보통의 아기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위대한 신비들이 이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우리가 해 본 경험들이고 잘 아는 것들입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사람들이 탄생을 위해 준비가 되었고, 목동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두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보세요. 성모 마리아나 요셉에게 말을 걸어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항상 말씀을 드리세요. 출생 과정을—실제의 출산 과정을—지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4. 청하세요: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을 우리처럼 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2,8-20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자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들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단상

마구간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가톨릭 신앙, 즉 참 사람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은 처음부터 선언되고 숙고되어 왔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최초 세대가 여전히 살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성 바오로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짧은 찬미가를 손수 지었거나 아니면 인용하여 적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골리 2,7)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승을 전달하는 것은 대개 신학자들의 방식입니다. 또 다른 전달 방식은 그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루카 복음이 그랬듯이 말이지요. 루카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합니다.

모든 가정에는 어려운 시절에 아기가 태어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가정의 사례를 보세요. 정부의 명

령 때문에 요셉이 식솔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야 했고, 마리아는 이미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모든 집과 여관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친정은 북쪽 나자렛이지 남쪽 베들레헴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태어날 아기를 기쁘게 맞아줄 가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를 도운 산파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루카는 사람들에게서 되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 일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여전히 기쁨이 있습니다. 활기찬 노래와 목동들의 호기심과 대담함 그리고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빛으로 가득 찬 기쁨. 너무나 인간적인 출발!

메모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청하는 은총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을 우리처럼 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신자들에게는 보호자이며 목자인 천사가 옆에 지켜 서서
그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 성 대 바실리오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시 낭송과 성가 부르기는 좋은 기도입니다. 성탄절 성가를 불러 보세요.
2. 이번 주간에: 당신은 인류의 구세주가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삶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모든 이에게 얼마나 단순하고 평범하게 보였는지를 기억해 내고 있습니다.
그 일은 평범하고 소박했습니다. 하느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마리아는 이 일을 특별히 마음에 새겨 두고 싶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놀랐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 일들을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합니다.
4. 청하세요: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을 우리처럼 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은총을 주소세!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2,8-20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누군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을 썼더니 365번이었다.

(일 년 동안 매일 한 번) 두려워하지 마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예언자나 천사가 말한 것이다.

지금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은 두려움은 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성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본다.

천사가 구세주 탄생을 알렸다. 나는 이 놀랍게 느껴진다.

벧짚 위에 누운 아기를 볼 때 나에게 드는 느낌은 이다.

마리아는 마음으로 곱곰이 새긴다. 나는 을 새긴다.

내가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청하는 은총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을 우리처럼 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시간이 더 있다면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텐데, 하고
상상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버려라. 시간을 잘 쓰는 사
람이 기도도 더 잘하는 법이다.

- 아빌라의 성 테레사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갈릴래아나 나자렛이나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쉽게 상상이 되는 장소 말입니다.
나자렛 동네의 그 특별한 집 문 앞에 당신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이번 주간에: 당신은 그리스도님의 인간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인간들처럼 자라시는지를 생각합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이 실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실수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족들도 모르는 채로 예루살렘에 남았고, 그들이 예수를 찾지 못하였을 때에 겪었을 불안감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착한 아들이로서 순종했고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4. 청하세요: 하느님, 당신 아드님을 우리처럼 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2,39-40.51-52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충애를 받았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충애도 더하여 갔다.

단상

성가정의 생활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그런 것처럼 좋은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에서 자라 소년기
에서 청년기로 성숙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이
들, 소년 소녀들과 지내는 법을 배웠고, 어떻게 놀고
일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가
르쳤습니다.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습
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 그러하듯이 가정에서 지
적, 정서적으로도 성숙해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 요셉과 함께 회당 모임에 참석하면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라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
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율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거부해서가 아니라, 양심껏
수용하기 위해서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는 당대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
하는 일과 누구를 용서할지, 정당한 분노와 살인에

대한 가르침 등이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그러하듯이 당대의 이슈들과
마주했습니다. 예컨대, 아버지 요셉처럼 로마에 세금
을 바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해마
다 부모님들과 성전에 갔는데,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
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작은 고을에서
노동자 부부의 아들로 단순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
들이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예식과
축제에도 참가하고, 친구들의 병환과 죽음을 느꼈습
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 모든 날에 계속해서 배우고 변
화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분도 자랐습니다.
단지 나이만이 아니라 지혜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은
총도 자랐습니다.

우리 모두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메모

제7주간 7일차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청하는 은총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을 우리처럼 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야고보는 양 떼를 돌봐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인(聖人)이 되기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 아빌라의 성 테레사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당신의 기도예 유념하세요. 성령은 때로 한 단어나 문장 하나로도 당신에게 큰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의 생각”을 내가 오늘 하루 하는 생각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오래가는 선물로 생각하고 적어 두세요.
2. 이번 주간에: 당신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삶을 사신 나자렛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분은 사랑이 아닌 일을 단 한 번도 고의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의 인간적 지해를 의식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는 어린이에서 소년으로, 그리고 우리가 십대라고 부르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4. 청하세요: 하느님, 당신 아드님을 우리처럼 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2,39-40.51-52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충애를 받았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충애도 더하여 갔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어린 시절에 예수가 자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의 어린 시절은 할 것 같다.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한다.
그들의 가정생활은 할 것 같다.

예수가 “지혜가 자랐다”는 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다.

예수가 “키가 자랐다”는 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다.

예수가 “하느님의 총애”가 더해 갔다는 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다.

예수가 “사람들의 총애”를 더욱 받았다는 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다.

예수, 마리아, 요셉이 서로 가족으로서 관계를 맺고 책임을 졌다는 것을 알겠다.
나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본다. 예수님에게을 말씀드리고 싶다.

표지석

-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모상으로) 창조되어 언제까지나 지성적이고 자유로우며 타자와 관계를 맺을 것이다.
-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되었으며 그 의미를 나자렛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다.
- 그리스도인은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와 신적인 생명을 공유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살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
- 성모 마리아가 천사에게 '예!' 하는 응답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 예수는 성가정이라고 부르는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

한 주간 매듭짓기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보게 된 것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번 주간에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다. 그것은,

함께 피정하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